

뉴스 라운드업

- 중동 지정학 리스크 재점화, 이란이 미국 에너지시설 보복 경고하며 WTI 92.70 달러(+1.33%)로 6 주 최고 수준 근접,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5 월 이후 최저
- 독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서 극우 AfD 약진, 메르츠 총리 CDU '수십년래 최악 패배' 자인하며 정치 불확실성 확대, 독일 10 년물 금리는 ECB 회의를 앞두고 4.5bp 상승
- 엔화 7 개월 최고치로 급등하며 달러인덱스 98.93(-0.23%)까지 하락, 미 9 월 금리인상 확률 62%로 높아지며 금은 4,406 달러대로 -0.48% 밀림
- 코스피 전일 세션 4.61% 급등 마감,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한국은행 연속 인상 사이클이 겹치며 미국 증시(-0.38%~-0.29%)와의 디커플링 오히려 확대

중동 리스크 재점화와 독일 정치 충격이 겹치며 유가·분트채 금리는 오르고 금은 밀렸다

이란이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을 재차 경고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고조됐다. 오만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사우디 유조선 시드르호 승선원 16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고,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국 에너지 수출이 이란-미국 갈등에 '불로로 잡히지 않도록' 대체 수송로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5 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제유가는 6 주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WTI 92.70 달러, +1.33%), 걸프 지역 증시는 에너지 인프라 리스크 경계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39 석을 확보하며 약진했다. 과반에는 못 미쳤지만 메르츠 총리는 이를 자당의 '수십년래 최악의 패배'로 규정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독일 10 년물 금리는 4.5bp 상승했다. 마침 유럽중앙은행(ECB)의 이번 주 회의를 앞두고 도이체방크가 12 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등 매파적 경계가 커진 시점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유로존 2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0.4%)을 웃도는 0.6%로 상향 확정되고 섹터스 투자심리지수가 4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성장 자체는 견조함을 시사하지만, 성장 동력이 순수출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서사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스톡스 600 은 보험, 영국 FTSE 는 소폭 하락 마감했다. 엔화는 일본은행(BOJ)의 정상화 기대 강화 속에 7 개월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이에 달러인덱스는 98.93 으로 0.23% 밀렸다. 다만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 여파로 9 월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상 확률이 62%까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은 오히려 4,406 달러대로 0.48% 하락했다 — 지정학 리스크보다 금리인상 기대가 금 가격에 더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생산자물가(PPI)·소비자물가(CPI)가 이 금리 경로를 재확인할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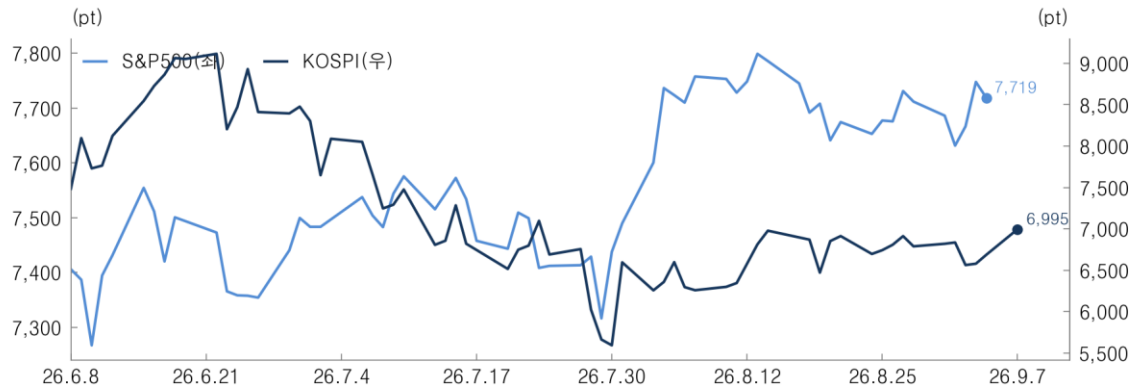
아시아 증시는 전일(월요일) 세션 기준으로 코스피가 반도체 수출 서프라이즈와 한국은행의 연속 금리인상 사이클에 힘입어 4.61% 급등 마감했고, 닛케이도 2.12% 올랐다. 다만 이는 모두 간밤 이란 리스크 재점화·독일 정치 충격·엔화 급등이 반영되기 전 수치로,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이들 변수에 대한 반응이 비로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시는 노동절 휴장으로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 종가(S&P500 -0.38%, 나스닥 -0.29%) 기준에 머물러 있어, 간밤 유가·정치 리스크가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오늘 밤 개장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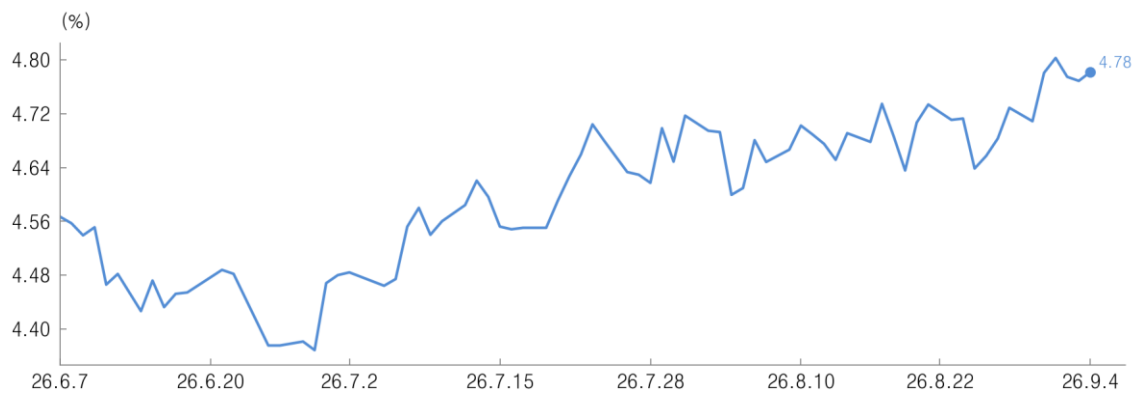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18.60	-0.38%	9/4 종가
	나스닥	26,506.99	-0.29%	9/4 종가
	STOXX 600	649.91	-	9/7 종가
	닛케이 225	66,399.77	+2.12%	9/7 종가
	CSI 300	4,575.02	+0.59%	9/7 종가
	KOSPI	6,995.39	+4.61%	9/7 종가
	항셍	25,413.12	-0.93%	9/7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8.93	-0.23%	9/7 종가
	달러/엔	154.32	-0.01%	9/8 종가
	유로/달러	1.16	-0.01%	9/8 종가
	달러/원	1,344.78	-0.09%	9/7 종가
	달러/위안	6.71	-0.01%	9/7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84%	+1.2bp	9/4 종가
	미국 2 년	4.374%	+3.4bp	9/4 종가
	일본 10 년	2.907%	-0.5bp	9/7 종가
	독일 10 년	3.385%	+4.5bp	9/7 종가
	한국 10 년	4.381%	+2.0bp	9/7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5bp	-1.0bp	9/3 종가
원자재	WTI	92.70	+1.33%	9/7 종가
	금	4,406.78	-0.48%	9/7 종가
	구리	6.70	+0.32%	9/7 종가
변동성	VIX	14.52	+1.47%	9/4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EM 기타 뉴스 14 건 HIGH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 이란의 유조선 공격·보복 위협으로 유가 상승 ↳ 사우디 국영선사 유조선 Sidr 호의 이란 공격으로 필리핀 국적 선원 2명 사망, 오만이 생존 선원 16명 대피(전체 25명 중 7명 행방 불명) ↳ 이란 국회의장 칼리바프의 추가 보복 경고 — 지역 에너지 인프라의 광범위한 노출과 미국 석유·가스 업체의 취약성 언급 ↳ 유가의 6주 고점 부근 상승,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동량의 5월 이후 최저수준 기록 • UAE, 이란 분쟁 대비 에너지·무역로 다원화 추진 ↳ UAE 대통령 고문 아나와르 가르가시, 에너지 수출·무역의 호르무즈 과도 의존도 회피 위한 다중 경로 구축 진행 중이라고 발표 • 사우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강화된 검사권 부여 검토 ↳ 7월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력 협정은 IAEA 추가의정서 서명을 미포함했으나, IAEA 총장 그로시가 추가의정서 수준에 '가까운' 검사권 논의 진행 중임을 언급 ↳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는 이란의 추가의정서 서명이 핵심 조건이었던 것과 달리, 사우디의 경우 미서명 상태로도 협정 체결된 상황 • 북한과 러시아, 두만강 도로교량 첫 개통 — 전략 협력 심화 상징 ↳ 일일 최대 300대 차량 통행 가능한 교량으로, 2024년 푸틴 방북 합의 이후 지난 4월부터 공사 추진 ↳ 양국은 기존 항공·철도 연결은 있었으나 도로 직통로 구축은 이번이 처음 • 우크라이나 외환보유액 \$487억으로 -5% 감소 — 국제 지원 둔화 ↳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전월 대비 -5% 감소했으며, 중앙은행은 국제 금융 지원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음 • 우크라이나 의회, 다음 주 해외 소포 과세법 재표결 추진 ↳ IMF의 필수 조건인 해외 송금 소포에 대한 과세법안으로, 전시 5년차 \$320억 초과액의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자금 확보 시급 ↳ 의회의 국제 약속 이행 의지가 시장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 시점 • 러시아 전기차 판매 6~8월 2배 초과 증가 — 연료 부족의 대체 수요 ↳ 6~8월 신차 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 26,543대로 전년 같은 기간(12,187대) 대비 2배 초과 ↳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6월 초부터 강화)으로 촉발된 연료 부족이 주요 배경이며, 대부분 중국산 차량 • 터키 중앙은행, 이번 주 기준금리 37% 유지 전망 — 연말까지 200bp 인하 ↳ 로이터 설문조사 기준 17명 중 16명의 이코노미스트가 목요일 정책금리 37% 유지 전망 • 체코 정부,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 24,900 CZK로 2,500 CZK 인상 승인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4 건	• 브렌트유 \$97.5대 7주 최고, 중동 긴장·유럽 정치 불안으로 주식 약세 ↳ 이란 호르무즈 해협 외곽 제한구역 설정 예고 (미군의 이란 선박 격침에 대응)

권역	요약
	↳ 유럽주(STOXX 600) 0.3% 하락, 나스닥 선물 0.3% 소폭 상승·저유동성 거래 환경 ↳ 독일 바이에른 주 선거에서 극우 AfD 당선, 유럽 정치 리스크 확대 • 미국 인플레이 데이터 임박, 연준(Fed) 9월 16일 인상 확률 60% 평가 ↳ 생산자물가(PPI)는 목요일, 소비자물가(CPI)는 금요일 발표 예정 ↳ 주간 미국 인플레이 지표, 연준의 다음 정책 경로 결정의 핵심 변수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0.25% 인상 거의 확실, 향후 정책신호가 시장 초점 ↳ 유가 상승·지정학 리스크·금리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 ECB 인상 후 다음 단계의 정책 경로 신호가 주요 시장 반응 촉발점 • 호주 달러 AUD/USD 0.7200 이상 유지, 연내 고점 0.7277 목표 ↳ 호주준비은행(RBA) Hauser 의 화요일 발언 예정, 최근 호주 강한 경제지표에 비춰 매파적(긴축 성향) 기조 전망 ↳ 미국 인플레이 데이터(PPI/CPI) 발표 시 달러 약세 시나리오가 호주 달러 추가 상승의 배경
미국 뉴스 8 건	• 연준 9월 인상 확률 60% 근처로 상향, 주간 물가 지표가 최종 결정 ↳ 현물 금 0.4% 하락, 강한 고용 통계 이후 시장의 9월 인상 확률 57~60%로 상향 반영 ↳ 생산자물가(PPI) 발표가 소비자물가(CPI) 이전이라 선행 물가 신호 역할을 하며 통상적 수준 이상의 시장 영향력 예상 ↳ 연준 정책담당자의 주 관심이 경기 성장보다 인플레이 통제에 있는 만큼 이번 주 물가 데이터가 최종 인상 여부 결정 • 트럼프 봉바르디에에 미국 내 생산 강요, 거부 시 미국 시장 판매 금지 ↳ 봉바르디에의 전 세계 운송 항공기 5,100 대 중 약 50%(2,550 대)가 미국 시장에 배치 ↳ 캐나다 기업이지만 캔자스주에 국방용 생산 시설과 3,500명 미국 인력 보유 중 ↳ 트럼프가 이전 발언에서 캐나다 항공기에 50% 관세 부과 및 일부 기종 운항 인증 취소 위협한 선례 • 달러엔 환율 154.05 신저점, 엔화 강세 대비 헤징 수요 확대 ↳ 지난주 159 달러 중반에서 순낙하로 154.05 신저점 경신(7개월 최저), 150 수준 방어 헤징 수요 최고조 ↳ 미국 노동절 휴장으로 G10 환율 거래 제한적이나 엔화 옵션 시장의 변동성 보호 거래 활발 • 중동 증시 약세, 미-이란 해상 분쟁 확대로 지역 리스크 재평가 ↳ 사우디 TASI 지수 0.4% 하락, 알라즈히 은행(-0.5%), 사우디 아람코(-0.2%) 낙폭 주도 ↳ 이란이 지역 에너지 인프라가 광범위하고 취약하다며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 가능성 경고 ↳ 주말 미-이란 간 해상 보복 교환 이후 투자자의 지역 위험 심리 악화
유럽 뉴스 16 건	• 독일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극우 AfD 가 역사적 1위, 메르츠 총리 "수십 년 만의 최악 패배" 인정 ↳ AfD 의 83 석 중 39 석 확보(44% 득표), 절대다수 미달로 소수 좌파 정당 BSW 와의 연정 추진 국면 ↳ CDU 슈울체 주총리의 통치 권한 상실 인정, 메르츠 총리의 민주적 질서 보전 강조 및 개혁의 필요성 제기

권역	요약
	↳ 작센안할트 유권자 87%의 메르츠 정부 불만족, 경기침체·주류정치 불신이 극우 부상의 근본 배경 • EU 폰테어라이엔 위원장, 그린란드에 2 억 유로 투자 약속 — 트럼프의 통제 요구에 대응 ↳ 중요광물·재생에너지·위성통신 등에 투자(약 2 억 3,200 만 달러 상당), 덴마크령 북극지역과의 관계 강화 추진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통제 요구가 NATO 내 긴장을 초래한 가운데 나온 대응 • 유로존 2 분기 GDP 상향 조정(분기 대비 +0.6%, 전년 대비 +1.2%), 독일 산업생산은 예상 외 -1.1% 월비로 반전 ↳ Sentix 투자자심리 지수 9 월 5.1 로 4 년래 고점(전월 0.9), 유로존 투자자의 향후 낙관심리 확대 ↳ 독일 산업생산 전월 +0.2%에서 -1.1%로 반전, 유로존 내 경기 회복의 지역별 이질성 표면화 • ECB 9 월 인상 기정사실, Deutsche Bank 의 12 월 추가 인상 예상 —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 미국-이란 분쟁 격화로 유가가 6 주래 고점 근처 유지, 에너지 비용 상승이 물가 재가속의 우려 요인 ↳ Amundi 는 ECB 의 9 월 이후 동결 가능성 제시하되 향후 위험요인 경고 • 유럽 주가·채권 약세 — 유가 강세와 금리 인상 우려의 혼재 ↳ STOXX 600 649.9 보합 마감, FTSE 100 -0.1% 10,822.13 으로 내림, 에너지주 강세가 낙폭 제한 ↳ Bund 수익률 상승, 천연가스 2023 년 1 월 이후 고점 근처 유지, AfD 승리에 대한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나 ECB 회의 앞두고 신중한 분위기 형성 • EUR/USD 소폭 상승하며 100-200 일선 범위(1.1563-1.1634) 재테스트 — USD 약세(JPY 강세)가 배경 ↳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로화에 하방 리스크 제공, ECB 정책결정(목요일) 및 미국 PPI/CPI(목요일·금요일) 이벤트가 주요 변수 • 폭스바겐, 독일 주 공장을 방위산업 생산으로 전환 — Rafael 사와 공중방위체계 협력 ↳ Aurelius 를 신규 소유주로 지정하여 공장 전환 추진, 전체 1,800 개 일자리 중 1,400 개 유지 예상 ↳ 자동차 제조사의 방위산업 전환은 폭스바겐으로는 처음 사례, 경쟁력 약화 공장의 재구조화 노력의 일환
중국 뉴스 2 건	• 중국 은행 재자본화 3,650 억 위안 규모 — 경제 부양 재개 ↳ 농업은행·산업은행 등 국영 대형 금융기관 대상으로 신규 자본금 포함해 약 3,650 억 위안(540 억 달러) 투입 ↳ 1 년 전 5,000 억 위안 규모 재자본화 이후 재개 — 금융권 자본 확충을 통한 신용 공급 확대 의도 •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공급업체 결제 규칙 강화 ↳ 기존 60 일 이내 지급 약속(작년 협약) 이행 감시 강화 — 제품 수락 절차 지연·비현금 결제 수단 악용 등 허점 차단 ↳ 선진국 다국적 자동차사 대비 결제 사이클이 여전히 길다는 지적에 따른 가격전쟁 억제 조치
일본 뉴스 5 건	• 엔화가 7 개월 고점까지 회복 — BOJ 긴축 기대와 투자자 자금 송환 지지

권역	요약
	↳ 7 월 말 일본 당국의 통화 개입 이후 USD/JPY 는 163.95(7 월 28 일)에서 154.05(9 월 7 일)로 하락, 엔화 약 10 엔 강세 ↳ 엔화 과도 약세 포지션(숏)의 선제적 청산이 진행 중 ↳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본국 송환 가능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 9 월 18 일 BOJ 금리 결정 앞두고 숏 청산으로 인상 충격 선제 흡수 — 시장 76% 인상 평가 ↳ 과도한 숏 포지션이 선제적으로 정리되면서 인상 결정 시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가능성 ↳ 반대로 BOJ 가 인상하지 않을 경우 엔화가 다시 하락할 위험성 내재
인도 뉴스 5 건	• 은행권 유동성 사상 최고(11 조 루피), 인도중앙은행(RBI)은 임시 조치만 지속 ↳ 인도중앙은행, 30 일 변동금리 역거래(VRRR) 7 조 루피 입찰 진행 — 응찰률 40% 미만에 그쳐 저조한 반응 ↳ 가중평균 콜 레이트(WACR) 3 일 연속으로 4.99% 기록, 정책 하한선 이하로 하락 — 금리 인하와 유사한 완화 효과 창출 ↳ 시장은 인도중앙은행이 28~29 일 추가 임시 조치로만 당분간 정책금리 인상을 미룰 것으로 예상 • 인도 국채 보합 마감 — 유동성 완화 신호와 유가 상승 압력이 상쇄 ↳ 벤치마크 6.94% 2036 년물 채권 수익률 6.9607% (전주 금요일 6.9625% 대비 보합) ↳ RBI 의 30 일 VRRR 저조한 응찰(40% 미만)을 유동성 완화 신호로 해석 — 긍정 심리 ↳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 국채 상승 여력 제약 • 인도 주가 6 주 최저점 진입 — 유가·글로벌 금리 압박 동시 작용 ↳ 니프티 50: -0.5% → 23,779.15, BSE 센섹스: -0.5% → 76,132.81 기록 ↳ 지난 4 주간 낙폭: 니프티 -2.7%, 센섹스 -2.5% — IT 섹터 주도적 약세 ↳ 중동 긴장 심화 + 미 금리 인상 우려가 복합적 악재로 작용
남미 기타 뉴스 1 건	•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글로벌 빅테크 초대형 데이터센터 입지로 부상 ↳ Pampa Energia, 어제 파타고니아 500 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투자자 모색 ↳ 저온·재생에너지·세일가스·광활한 토지로 초대형 데이터센터 입지 조건 충족 ↳ 통신 연결과 전력 인프라 구축이 프로젝트 진행의 핵심 과제로 남음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